

영성체 전의 준비 기도

신앙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서 제대 위의 성사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믿나이다. 지고하신 진리이신, 흠숭하올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나이다. 성체 성사 안에 계신 당신께 성 베드로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흠숭

나는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을 나의 창조자, 주인, 구속자,
그리고 나의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써 인정하나이다.

희망

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전체를 이 신성한 성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으니,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천국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은총들을
허락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랑

오 주님, 당신께서는 무한히 사랑스러우신 하느님이시니 당신을 모든 것
위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였음을 용서하소서. 나는 대천사의 불타는 열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보다 더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나의 어머니이신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예수님, 또한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

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나이다.
그러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나의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애통

오 예수님, 당신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다시 비나이다.
그다지도 사악했으며 당신을 수없이 거스렸던 나를 당신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은총으로써 가장 미소한 죄의 때까지도 씻어주소서. 나는 당신을 합당하게
모시기 위하여 천사와 같은 순결함으로써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원의

나의 하느님, 나의 영혼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마음 안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육신 안에
오셔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현존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은총과 사랑에 장애되는 모든 것을 내 안으로부터 없애어 주소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을 기억하자. 이 순간이 오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한 순간이다.

나 자신을 잘 준비하자. 예수님께 그분께 대한 사랑과 원의가 열렬한 마음을 드리자. 이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을 잘 기억하자.

그리고 나의 영혼이 대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하자. 비록 통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고해를 하지 않고 영성체하는 것은 무서운 독성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영성체는 미사 중에 하도록 하자.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사 외에서도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영성체 예절이 거행되는 곳에서). 그리하여 단 하루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

열렬한 영성체가 가져다 주는 열매들을 기억하자:

- (1) 내 안에 성화 은총을 지켜주고 증가시켜 준다,
- (2) 소죄들을 사해준다,
- (3) 대죄의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준다,
- (4) 애덕을 증가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해주어 위로와 기쁨을 준다.